

사이버 해킹·불법수출 북, 작년 3조원 벌었다

정부 “가상화폐 7억 달러 훔쳐”
“살상무기 개발 마르지 않는 샘”
중국 지원 도발 행위 영향 미쳐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해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 수출 등으로 23억 달러(한화 3조원대) 규모의 외화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다양한 불법적인 통로로 약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절반은 사이버 해킹과 유엔 결의 위반 불법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베트남 개발사 ‘스카이마비스’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 인피니티’와 미국의 개인 간 금융(P2P) 기업 ‘하모니’ 등을 공격해 7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상화폐 탈취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 1조2,000억원 어치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비롯해 미사일 70여 발을 쏘는 등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6기를 서해로 발사했으며, 12일에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쏘았다”며 “사이버 범죄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해킹 외에도 지난해 석탄, 금, 무기 등을 밀수출해 3억~4억 달러를 벌였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불법 파견한 노동자들로부터 3억~4억 달러의 상납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했다.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ICBM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또 2017년 채택한 제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과 더욱 밀착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의료품 등 무상 지원과 원유 차관을 포함해 7~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제공받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외화 수입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WMD 개발에 가용 재원을 ‘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원이 북한 도발 행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 고갈이 심화하면서 무역 축소를 대체할 영역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며 “과거처럼 노동자 파견을 늘리거나 광물을 수출해 외화를 얻기 어려워지자 불법적인 사이버 해킹 등으로 자금을 탈취하는 데 집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전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텐데, 불법적으로 얻은 외화 수입은 WMD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아·태 동맹들과 ‘무기 호환성’ 강화

WSJ “호주 이어 한·일도 동참”
대만 침공 우려 중국 위협 대응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과 무기 호환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 강화에 나서는 나라로 호주를 꼽았다. 영어권 기밀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고 미국·영국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도 공동 개발하기로 한 호주는 최근 미군과의 협력 능력을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 발생 시 작전 기지가 될 수 있고 미 해병대가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전략 요충지인 호주 북부 주둔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특히 동일한 군수품 제조방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도 같은 장비를 구입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인적 연결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이미 미군과 함께 F-35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업그레이드된 에이브럼스 탱크, 아파치·블랙호크 헬리콥터 등 더 많은 미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가 운용 중인 웨지테일 정찰기를 구입하고 호주가 전투기와외의 공동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 중인 무인기 ‘유령 박쥐’(Ghost Bat)도 시험하고 있다.

최근 케네스 윌즈바크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이 동맹국 방문에 나섰을 때는 4만6천여 미 태평양공군 지휘관을 호주군 소속 공군소장이 맡기도 했다.

WSJ은 이 호주군 공군소장은 최근 하와이 주둔 미 태평양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동맹국 군인이 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동맹국 장교가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 임무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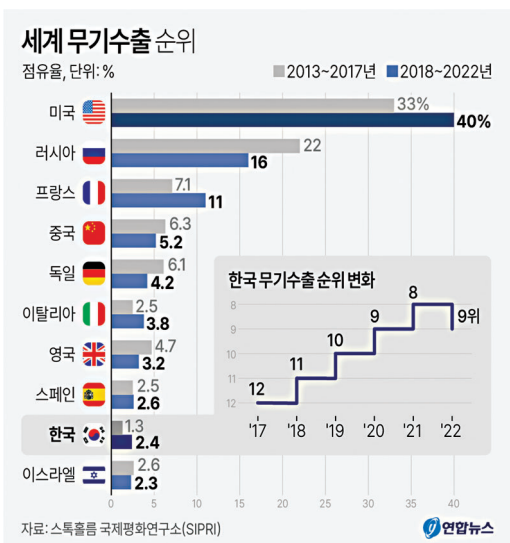
한국, 무기수출 규모 5년간 74% 증가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가 무려 74% 증가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13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5년(2013~2017년·1.3%)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전년도 보고서(2017~2021년)에서 시장점유율 2.8%로 세계 8위까지 올라갔던 것에서 한 계단 내려온 9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러시아 ‘편드는’ 나라 오히려 늘었다

영 EIU 분석, 한·일은 ‘비난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고립 강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의 국가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 등지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에서 이탈하는 나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보고서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며 “중립적이거나 비동맹적 스탠스를 취했던 국가들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IU는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여러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집행, 유엔에서의 투표 성향,

국내 정치 상황, 공식 성명, 경제·정치·군사·역사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국가의 수는 1년 전 131개국에서 일부 신흥국 이탈의 영향으로 12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도 러시아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분류됐다.

중립국은 32개에서 콜롬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더해지며 3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양쪽 모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IU는 설명했다. 러시아로 편향된 나라는 29개에서 35개로 증가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말리·부르키나파소·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미의 볼리비아, 중동의 이란 등에서 러시아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고 EIU는 분석했다. 북한도 여기에 속했다. /연합뉴스



몰도바 반정부 시위 참가한 야당 부대표
몰도바 반정부 시위 참가한 야당 부대표

친러시아 성향인 몰도바 야당 쇼르당의 마리나 타우버 부대표가 12일(현지시간) 수도 키시너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쇼르당 소속으로 부패혐의 때문에 해외 도피 중인 올리가르히(신흥재벌)가 조직한 이날 시위에서 시민들은 몰가 상성과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HI-NURI 하이랜드(주)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HI-NURI (주)나로디엠씨 HI-NURI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

